

“옛 국군광주병원터에 국가폭력 치유시설 조성”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옛 국군광주병원(왼쪽)과 옛 기무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옛 국군광주병원을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전문기관으로, 옛 505보안대 부지는 역사·체험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 5·18 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시장에 보고할 계획이다. 운장현 광주시장도 비슷한 조성방안을 언급한 바 있어 사실상 옛 국군광주병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전문기관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용역은 5·18 기념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안, 5·18 사적지 보존·활용 방안, 국군 광주병원과 505 보안부대 터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광주시가 발주했다.

부지 절반은 녹지 쉼터로...505 보안대는 5·18 역사교육 공간

전남대 5·18연구소 용역결과 오늘 보고...市, 심의위 개최 예정

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기념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 보고서에서는 국군광주병원 기존 건물과 시설물 36개 동을 트라우마 치유·요양시설로, 9만4000여㎡에 이르는 부지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녹지를 열린 쉼터로 개방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현장답사에서 “국군광주병원 옛터를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 구상을 공식화했다.

동행한 5월 단체 관계자들도 트라우마 치유와 요양 시설로 활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옛 505 보안대 3만2000여㎡는 5·18 기억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역사교육 공간이자 어린이 체험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소년 교류학습 창작 공간, 방문자 숙소, 체험학습 공간 등 조성계획이 담겼다.

■ 옛 국군광주병원 터 위치도



광주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념사업과 사적지 보존 방안을 결정하고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삼성전자, 市에 부품생산 외주화·협력업체 기술지원 제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이 전으로 촉발된 지역 가전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측도 협력업체 기술지원 체계 구축, 상생펀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광주시가 주도하는 가전산업 상생 지원 대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DK산업(주) 회의실에서 ‘가전산업 상생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상생협의회 위원, 산업

체 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시와 연구기관이 검토한 신규 아이템과 운장현 시장과 삼성전자 서병삼 부사장의 협의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이 소개됐다.

전자부품연구원 신찬훈 본부장은 ‘에어 가전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시가 지역산업 거점사업으로 추진할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배정찬 원

장은 지역업체의 협업에 기반한 ‘광주형 완제품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는 “무풍에어컨과 패밀러 히브 등 고급형 냉장고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며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다시한 번 강조했다.

삼성전자측은 “사내 생산부품의 외주화, 협력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지원체계 구축, 상생펀드 활성화 방

안 등을 협력업체와 함께 논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지역 가전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 기업은 이 자리에서 광주테크노파크가 발표한 ‘광주형 완제품 생산모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품산업 사업 다각화나 신규사업 진출을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과 논의된 사항은 유형별로 세분화해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보건환경연, 올 방사능 검사품목 90개로 확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시민 관심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강화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안정성 검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0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올해 9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검

사 표본 또한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매·재래시장, 마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우려와 관련 ▲서부 도매시장 반입 수산물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확대는 물론, 한빛원전과 인접한

광산구 일대 발작물 및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보증을 위해 수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 가정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명태와 대구, 버섯류 등은 매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도매시장 수산물 중 고등어, 삼치, 갈치 등은 6개월 이내 정기적 검사로 방사능 불안감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요오드(I)-131과 세슘(Cs)-134, 세슘(Cs)-137 3개 항목을 검사하고, 결과는 연구원 누리집(hevi.gwangju.go.kr)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김은선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방사능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치동물원서 먹이주기 체험하세요

수이사·사육사 탐방교실도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올해도 동물생태전문가와 함께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치공원은 먼저 사전신청 없이 현장에서 동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사육사와 함께 먹이주기’ 체험을 4~5월과 9~10월 내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공휴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먹이주기 체험에 참가하는 관람객은 배태랑 사육사들의 경험담을 접하며 5개 동물사에서 코끼리, 사슴, 양무새, 무플론(큰빨산양), 아기동물(양·생·염소)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다.

‘생태해설사와 함께 동물원 한바퀴’ 체험도 4~6월과 9~11월 여섯 달 동안 매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1시30분에 진행한다.

이 체험은 관람객들이 우치동물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물생태해설사와 함께 동물원을 순회하면서 각 동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으로 1회당 최대 20명이 참가할 수 있다.

‘동물원 한바퀴’ 참가를 원하는 관람객들은 새롭게 단장이 끝나는 다음달 14일 우치공원홈페이지(<http://uchipark.gwangju.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원 직업 탐방교실’은 4~5월과 9~10월 매월 1회, 초등학교 3~6학년이 대상인 ‘부모와 함께하는 야생동물생태교실’은 8월 여름방학 기간 2회, 내년 1월 겨울방학 기간 2회가 개설된다.

‘동물원 직업 탐방교실’은 수의사와 사육사의 삶이 궁금했던 학생들이 우치동물원 현장 수의사·사육사와 만나 얘기들을 나누며 미래의 꿈에 한발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는 종합로체험지원전산망 ‘곰길’(<http://www.ggoomgil.go.kr>)을 통해 학교별 단체만 가능하다.

지난해 처음 개설돼 인기를 모았던 ‘부모와 함께하는 야생동물생태교실’은 1회당 참가학생을 기준으로 2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우치공원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물생태해설사 6명 공개 모집

광주 동물원 동물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동물생태해설사를 모집한다.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올해 오감 체험행사를 진행할 동물생태해설사 6명을 공개 모집한다.

미취업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동물원에서 자체 교육을 한 뒤 생태해설사로 위촉해 활동하게 하는 시민 연계 프로그램이다.

자체 교육은 다음 달 14일부터 3주간 야생동물생태 강의(20시간), 서울 동물원과 서천 국립생태원 등 해설 관련 기관 현장 견학(20시간), 리허설(6시간) 등 총 46시간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을 마친 해설사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원을 한 바퀴 돌면서 생생한 이야기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시간은 하루 총 6시간으로 1주일에 하루 정도 근무하며 활동비로 하루 최대 6만원을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2~4일 우치공원관리사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올해 7~9급 공무원 352명 채용

광주시는 올해 7~9급 공무원 35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0명 증가한 규모로 행정직 251명, 기술직 10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0명, 8급 4명, 9급 328명이다.

장예인은 전체 채용 인원의 8%인 28명, 저소득층은 6%인 21명을 채용한다. 이는 법정비율 채용 비율(장예인 3%, 저소득층 1%)보다 각각 5% 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는 가사·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총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28명을 채용하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기술직 9급 6명도 채용하기로 했다.

제2회 8·9급 264명은 4월 18~22일 원서접수, 6월18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제3회 7급, 연구사 등 26명은 7월 11~15 원서접수해 10월 1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